

☆ 서사문학을 알게되면

독학 재수생을 위한

국어 단기간에 끝내기 반 (화목반) 모집중에 있습니다.

기간은 최대 4개월입니다. 4개월에 모두 1등급 달성입니다.

국어 3등급 학생들은 주 1회 수업이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 2회 수업을 합니다. 화, 목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그리고 주 1회 사설 모의고사 봅니다.

혹시라도 주 1회가 필요한 학생은 금요일 모집합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그리고 점심 먹고 모의고사 보고 갑니다.

제 학원은 대치동에 있습니다. 수업 듣고 그날 오후까지 공부하다 가셔도

됩니다. 질의 응답 비용은 음료수 한 잔값..

안녕하세요. [김현종 T입니다.]

오늘은 [① 번째] **소설 문학 분석**으로 다가갑니다.

이 소설문학 분석은 역시 1등급 학생들은 패스하시고
어설픈 2등급과 3-5등급 이하 친구들을 위한 것입니다.

늘 해도 해도 안 되는 국어 때문에 고민 있고 괴로운 친구는 이왕이
면 비문학, 시문학 칼럼을 먼저 읽고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순서대로 보고 오셔야 효과가 큼니다. !!

자 들어갑니다. 소설은 간단합니다.

서사문학 = 사건을 서술한 글 = 인물들이 일으키는 사건(갈등)을 글로 나타낸 것

= 대표적인 장르로 소설문학, 극(희곡)문학, 시나리오, 수필문학...

자 지난번 시문학 칼럼에서 문학은 서정과 서사문학으로 나뉜다고 했
습니다. 모두 기억나실 겁니다. 아직도 문학은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으
로 나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운문문학과 산문문학으로 나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없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해

서사문학은 사건을 서술한 글이고

사건이라는 것은 반드시 인물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책상에 있는 연필과 지우개가 사랑을 나누었다고
해보세요. 그 얘기를 믿어줄 친구가 있습니까? 노란분필과 칠판이 서

로 싸우고 있다 ???....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 바로 인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솝우화처럼 의인화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 그러면 사건이 됩니다. 노란분필, 빨간분필의 사랑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사건은 반드시 인물이 개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자동차 교통사건입니까?...교통사고입니까 ?..... 사고겠지요 ?.....

물론 만약 거기에 인물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일부러 개입했다면 교통사고를 가장한 살인사건이 될 수도 있겠지요.... !!!

영화제목 주유소 습격사고입니까 ?...사건입니까 ?....사건이죠?... 그러면 인물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개입한 사건입니다.

천안함 사고일까요? 사건일까요?... 여당은 테러사건이고 야당은 침몰 사고라고 합니다... 그 차이점... 이제 아시겠습니까 ?

신문에서 사건과 사고라는 코너가 있죠 ?.... 고속도로에 트럭이 넘어져 교통마비가 온 것은 어디에 실릴까요 ?...당연히 사고 코너겠지요 ? 그렇다면 살인사건은 어디에 ?....사건에 실리겠지요....!! ... 분명 인물의 어떤 의도가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좀 얘기가 딴 데로 빠졌지만...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만나는 소설문학 ... 총 45문항 중 문학 파트에서 현대소설, 고전소설, 몇 년에 한번씩 희곡문학까지 이렇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소설에 대해 잘 모른다 해도 웬만하면 소설문제는 틀리는 경우는 드뭅니다만 그래도 정식으로 알아두면 좋은 거 아닐까요 ?
혹시라도 올해 수능이 불수능이 예상되는 가운데 작년에는 비문학이 있었다면 올해는 문학쪽에서 어렵게 나올 수도.....

자, 다시 원점으로 갑시다.

사건은 반드시 인물이 일으킵니다. 하지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일으키는 않겠죠 ?....자다 일어나서 아..내가 오늘은 사람 하나를 차로 치어야 겠다... 때려야 겠다... 이러지는 않잖아요.....그러니 사건은 사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한 전제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갈등입니다.

잘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사람(철수라고 합시다)을 때릴 수는 없겠죠 ? 하지만 잘 자다 일어나보니 어제 철수의 행동 때문에 주인공은 화도 나고 울화가 치밀어서 가슴속에서 고민하다가 다짜고짜 철수에게 다가가서 주먹을 날린다..... 이것을 분석해 봅시다.

내가 철수를 때린 것 === 사건입니다.

철수 행동 때문, 울화, 분노... ===== 사건을 일으키게 한 갈등입니다.

그러면 갈등은 사건을 일으키는 요소인데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

갈등이란 = 주인공의 행위나 생각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 이렇게 알

고 있으면 됩니다.

손예진 같은 여자 친구가 배고프다고 밥 사달라고 하면 기분이 좋아 집니다. 그런데 오나미 같은 친구가 배고프다고 사 달라면 어떻게든 핑계를 대서 피하려고 하겠죠? 그때 오나미가 나 같은 미녀를 놓치면 인생에서 중요한 3가지 중에 하나를 잃는거야... 라고 한다면 그때 부터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를것죠... 그래서 결국 오나미를 제거(사건 발생 = 당연히 갈등이 있어야 겠죠?)합니다.

이것은 주인공의 생각에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길동이가 형을 형이라 불렀는데 ... 아버지를 아버지라 불렀는데...제재가 왔습니다. 이때가 바로 행위에 브레이크가 걸린 겁니다.

이처럼 주인공의 행위나 생각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은 모두 갈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갈등을 더 살펴봅시다.... 다시 갈등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외적 갈등과 내적 갈등...

우선 내적갈등은 겉 자아와 속 자아가 서로에게 브레이크를 거는 것입니다. 겉 자아가 빵을 먹고 싶어서 손을 뻗는데 속 자아는 계속 다이어트 중이다 라고 하며 손을 못 뻗게 한다면 조금 있다가 빵을 먹든지... 안 먹든지 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적 갈등은 나와 내 피부 바깥에 있는 모든 것과의 투쟁에서

비롯됩니다. 제일 많은 갈등이 인물과 인물간의 갈등이죠. 저 위에 오나미가 바로 해당됩니다. 그 다음은 인물과 배경과의 갈등이 또 많습니다. 길동이는 옆집 아줌마, 앞집 아저씨와 갈등이 있어서 이상국을 건설하는 사건을 일으킨게 아닙니다. 바로 그를 둘러싼 환경 즉 배경, 사회가 그에게 브레이크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배경이 바로 갈등의 원인인 것입니다.

이외에도 인물과 자연과의 갈등, 인물과 운명과의 갈등 등... 종류가 많습디다만 다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슬슬 갈등을 공부하는데 자꾸 배경이 나옵니다. 그럼 배경을 공부해 봅시다.

소설 공부할 때 사회적배경, 공간적배경, 시간적배경 ... 열심히 필기하며 공부하는 친구들 보면 답답해서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또 열강하는 선생님께서는 자습서에 없는 내용이야... 하면서 ... 마치 자기만이 그것을 아는 것처럼 설명하는데.... 결국 그때 소설의 모든 줄거리와 배경지식을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해주고 ...그것을 또 여러분은 주워담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분명하게 말할게요....그런 것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심합시다 !!!

수능식 접근에서 배경이라는 것은 바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
이나 아니냐가 관건입니다. 예를 들어 주인공이 겨울 한밤중에 움직인다...라는 구절에서 시간적 배경, 계절적 배경...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겨울 한밤중에 어느 궁녀가 담을 넘었다 했을 때 ... 바로 인물인 궁녀가 일으킨 사건을 찾아야 하고 왜 궁녀가 담을 넘었냐

면 궁녀를 둘러싼 주변 환경 때문에 갈등이 고조되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을 때 썬판 처음 보는 소설이라도 거뜬히 풀어내는 것이고 아주 가볍게 소설의 고민을 날려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을 둘러싼 부정적 현실... 대부분 고전소설이 인물과 인물간의 갈등보다는 인물과 배경과의 갈등이 주로 많습니다. 이해 될 겁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서사 = 사건을 서술한 글이고

= 사건은 반드시 인물이 일으키는 것이며

=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갈등이 있어야 하는데

=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인물과 배경이 있다...

그래서 소설에서 인물, 사건, 배경을 서사의 3요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요소라는 것은 하나라도 없으면 서사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죠. 소설 읽는데 여러분 배경만 나오는 소설이 있다고 칩시다...???

말이 되나요 ?.... 인물이 없으면 갈등도 없고 사건도 생길 수 없습니다. 이제 정리 되시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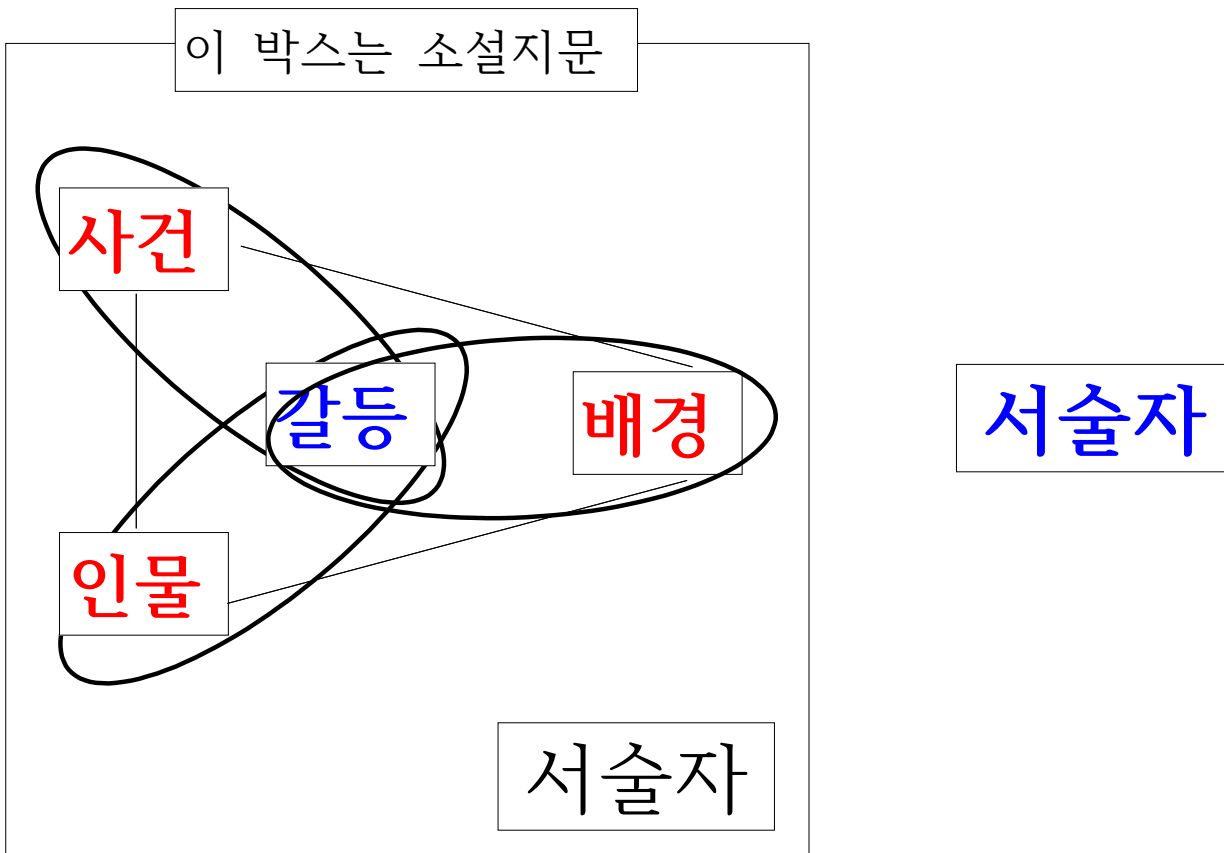
선생님 그러면 갈등은 왜 3요소에 없죠 ? 지금까지 보니까 상당히 중요하다고 설명하셨잖아요....!!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 드리면....

서사의 3요소 = 인물(갈등), 사건(갈등), 배경(갈등)....

= 이처럼 갈등은 인물, 사건, 배경에 모두
녹아있는 필수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
다.

이제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은 그림이 나옵니다.
서사의 3요소가 한편의 박스로 둘러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만나는 소설 지문입니다. 조그만 그 지문속에서 3-5문제가
출제되는데 바로 이 서사의 3요소가 중심이 되어서 출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발 부탁인데 줄거리, 배경지식....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몇 개의 기출 지문과 문제로 풀어드릴게요...

분석노트 비싼 돈 주고 사지 말고 그냥 EBS 연계교재 사서 푸세요...

자 그러면

소설 지문 속에는 인물과 사건(갈등), 배경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독자에게 전달해주는 사람이 있는 데 이 사람이 바로 서술자입니다. 시에서는 화자겠죠... ㅋㅋ 기본..

이 서술자가

그림에서 보듯이 지문 안에 있냐, 밖에 있냐에 따라 시점이 나뉩니다.

1인칭과 3인칭, 이것은 설명안해도 다 아니까 패스.....

그러면 서술자는 우리 독자에게 인물을 전달할 것이고, 사건과 배경을 전달할 것입니다. 당연히 그 속에 녹아있는 갈등도 전달하겠죠....

그러면 그 서술자에게도 전달 방법이 있겠죠 ? 그 서술자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방법.... 이것이 나중에 문제에서는 서술상 특징으로

나오게 됩니다. (시에서는 서술할 수 없으니까 표현상 특징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외우는게 아니라 이렇게 원리에서 만들어져 나온다는 것을 알면 어떤 시, 어떤 소설이 오더라도 외우면서 공부하는 그런 안타까운 방법을 버리게 된답니다.)

즉 서술자를 문제에서 출제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서술자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인물이 일으킨

사건 및 배경, 인물이 누군지에 대해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특별한 전달 방법을 알아볼까요 ?

1. 소설 속 인물을 우리 독자에게 전달하는 방법

= 직접 제시 방법과 간접 제시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다 아는 내용이지만 혹시나 모르고 있는 3-5등급 친구들을 위해 지루해도 설명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 직접제시 : 인물에 대해 서술자가 직접 이것 저것 모두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는 화가났다... 그는 누구 집 셋째 딸이다.. 그녀는 그곳에서 따지려고 작정하듯 불난 목소리였다... 등등... 이렇게 독자는 특별히 고민한지 않아도 서술자가 너무나 친절하게 모두 알려줍니다. 등장인물의 내면도 다 알려주고 우리는 잘 모르는 그의 모든 것을 빠짐없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술자가 한마디 말로 모두 말해준다고 해서 말하기 기법(Tell)이라고 말합니다. 서술자는 빠짐없이 모두 말해줍니다.

: 그래서 이곳에서 서술자의 논평(편집자적 논평, 작가개입) 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독자들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다 알려주니까...그래서 인물을 직접제시하는 서술자의 이런 행위에 대해 수능에서는 이렇게 보기가 나옵니다. 독자의 긴장감이 떨어진다....라고요.... 여러분, 부탁인데 등장인물의 긴장감과 독자의 긴장감은 분명히 다릅니다... 보기 읽을 때 조심히 읽으세요....

: 직접제시는 모두 서술에서만 나타납니다. 그러니 인물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서술만 읽을지,, 아니면 대화 부분만 읽을지... 잘 판단해서 읽으면 됩니다.

= 간접제시 : 등장 인물의 행위나 대화, 외면묘사 등을 통해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서술자가 주로 보여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불친절한 서술자이죠... 그 등장인물에 대해 자세히 알려달라고 해도 잘 안 알려주고 그냥 보여주기(Show)만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독자보고 너네가 알아서 판단해라... 하면서 그들의 대화, 그들의 행동, 그들의 외면을 보고(Show) 판단해 보라...

: 그래서 독자의 긴장감은 어떻게 될까요 ?..... 당연히 고조되겠죠 ? 이것 저것 살펴보고 분석해야 할테니까요... 이 친구가 저 친구를 좋아하나 ? 아니면 싫어해서 이렇게 대하나 ?... 읽어가면서 독자가 에너지를 많이 써야 하는 제시방법입니다.

: 이 간접제시 방식을 다른 말로 한다면 극적 제시라는 말을 씁니다. 극적 제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마치 극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또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소설속의 내용들이 대화 부분이면 연극으로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인물의 행동이면 바로 연극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외면의 모습도 바로 연극에서 바로 적용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소설 문제 풀다가 극적제시를 만나면 소설 속 내용이 바로 각색 없이 극으로 옮

길 수 있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문제 풀면 됩니다. 지문의 특정 부분을 [A] .. 이런 식으로 묶어서 자주 물어봅니다. 극적이란 말을 영어로 바꾸면 바로 [Show]입니다. 보여주기....

자 지금까지 인물을 제시하는 서술자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사건도 우리 독자에게 제시하는 사람이 바로 서술자입니다.

따라서 사건도 어떻게 제시하는 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소설 속 사건을 우리 독자에게 전달하는 방법

= 요약적 제시 방법과 분석(설명, 해설)적 제시 방법이 있습니다.

요약적 제시 : 긴 **시간**을 짧게 **서술**하는 것입니다.

분석적 제시 : 짧은 **시간**을 길게 **서술**하는 것입니다.

그가 돈 봉투를 내밀며 우리집으로 들어와 살게 된 것도 3개월이 지났다. 비가 심하게 내리던 장마비에 차양을 고쳐주기도 했고, 막내 병원비가 부족할 때 슬그머니 약값을 들이밀기도 했던 그였다....

= 이 부분은 서술입니까 대화입니까 ?... 당연히 서술이죠...그리고 보니까 몇 개월동안 있었던 일을 아주 짧게 딱딱 줄여서 말하고 있죠. 이렇게 긴 시간을 짧게 서술한 것을 요약적 제시라고 요약적 서술이라고 합니다.

= 더 익숙한 것은 길동이 태어나 3세에 국제중을 졸업하고 8세에

서울대를 합격하여 12세에 행정고시 및 사법고시를 패스하니 단, 몇줄에 그 사람 일대기가 정리됩니다. 자주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일으킨 사건들을 요약적으로 제시합니다. 이태준의 돌다리 소설 보시면 아들이 병원을 세워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몇 개월, 또는 몇 년의 일입니다.)을 나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요약적으로 사건을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분석적 제시는 주로 대화와 인물의 내면심리 부분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담배 한 모금 빨아들이는 시간인데 소설책에서는 몇 페이지가 지나갈 수 있죠? 예를 들면 타이타닉 영화를 보면 시작할 때 어떤 할머니가 나오면서 커피잔을 들면서 손자손녀들에게 옛날 얘기해줍니다. 그러면서 타이타닉 이야기가 한 100분 진행됩니다. 우리는 그때 그 할머니는 잊어버리고 영화에 몰입합니다. 마지막 끝날 때 남자주인공 얼어 죽고 바닷속으로 사라지더니....갑자기 할머니 커피잔을 내려놓으면서 끝납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커피 한잔 마시는 그 몇 초 안되는 리얼타임 속에 엄청난 시간의 이야기가 흘러갔다는 것을 압니다. 물론 이것은 내면심리라고 가정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소설은 대화와 서술로 이렇게 딱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문제를 보면 대화에서만 찾아야 하는 문제가 있고 서술에서만 찾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념 없는 친구들은 소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 엄청난 시간 들여서 답은 틀리게 되죠...

= 예를 들면 ① [A]는 극적제시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구절이 있다면 그냥 쉽게 아 소설이 극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

펴보아야지...하면서 [A]부분 보면 거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고 두 세 줄의 서술이 있는데 그 인물의 행동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극으로 바뀌서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극적 부분이니까 맞는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응용해서 적용하면 됩니다. 이런거는 문제 풀 때..자세히...설명할게요...

3. 소설 속 배경을 우리 독자에게 전달하는 방법

= 이것은 거의 서술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계절, 시간, 사회적, 문화적 배경 등... 다양하게 제시되지만 이걸 초딩 수준이고 그것보다는 주인공과의 갈등 구조로 나오는 배경들을 여러 가지로 보여지게 됩니다. 나상이라는 기출소설 보면 다리를 절룩거리는 형이 끝내 죽게 되는데 그 두형제를 둘러싼 자연적 배경, 상황적 배경, 계절적 배경 등이 모두 갈등요소로 작용하다가 결국 형의 죽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단순히 겨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상황, 포로라는 상황 등이 모두 배경으로 작용하여 사건이 진행되었다는 것이죠....이런 것을 읽어낼 수 있으면 됩니다.

서술자의 시점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는 내용이고 이것은 문제를 풀 때 조금씩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015년 B형 기출 소설인 무영탑을 위 내용으로만 분석해 보겠습니다. 배경지식과 분석노트 없이 쌤판 처음 보는 소설을 2분 30초에서 3분 05초 내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동참하실 분들은 손들어 주십시오... 손 안들면 안 합니다

!!!